



함평군, 부폐방지 시책평가 1등급

함평군이 전남도가 실시한 2017년 부폐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해 3년 연속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18일 함평군에 따르면, 부폐방지 시책평가는 전남도가 도내 22개 시군의 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해 부폐방지 노력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반부패 의지 및 노력도와 부폐방지 성과를 평가해 합산한다.

함평군은 올해까지 3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해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남도 실시…3년 연속 최상위권 유지

부폐방지 노력 ‘청렴 함평’ 명성 이어가

군정을 구현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꾸준히 힘써왔다

는 평가를 받았다.

함평군은 민선6기 초기부터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를 강화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주력했다.

직위별·직무별 청렴행동수칙 운

영규정을 제정하고 실무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공직자들이 능동적으로 청렴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했다.

‘제4회 도전 청렴 골든벨 퀴즈대회’를 개최해 공직자들의 관심과 호

응을 이끌어냈다.

부정침략 및 금품수수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 청렴문화 정착에 도움했다.

인병호 군수는 “청렴 함평을 실현하기 위해 전 공직자가 합심해 꾸준히 노력해 꾸준히 높은 수준의 청렴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전국에서 가장 청렴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군민과 소통하며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함평=김광춘 기자



신안군 홈페이지, 2년 연속 최우수상

‘제14회 웹 어워드 코리아’ 지방자치분야서 수상

신안군이 (사)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에서 주최하는 ‘제14회 웹 어워드 코리아’에서 전국 최초로 2년 연속 ‘최우수 홈페이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웹 어워드 코리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후원하며 홈페이지 평가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시상식으로 차지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3,000여명의 평가위원단이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웹사이트를 선정해서 시상한다.

신안군 홈페이지(www.shinan.go.kr)는 2016년 출범한 첫 해 지방자치기관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하였으며, 금년에도 최우수 홈페이지로 선정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2년 연속 수상을 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군 홍보영상 유튜브 서비스와

1025개의 셀 관광자원 마케팅은 관광객으로 하여금 방문과 체험의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선착장·배시간을 이미지화한 운항정보와 바다위에 흘어진 섬을 나타낸 바다영상은 신안군만이 갖는 독특함을 잘 표현했으며, 메인페이지에 특산물을 배치하여 행정기관과 군민이 판로 개척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점 등이 높이 평가되었다.

고길호 신안군수는 “신안군 홈페이지가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주민과 방문객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700여 전 공직자가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더욱 더 소통하고 ‘섬들의 고향 신안’을 국내·외에 알리는 홈페이지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박용식 기자

보성군, 출향향우 초청 ‘고향 바로알기 문화탐방’ 호응

재부신향우회, 고향탐방하며 후배위해 장학금 기탁도



보성군은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재부신향우회(회장 김만식) 기족 5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출향향

우 고향 바로알기 문화탐방’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출향향우 문화탐방’은 지난 7월 서울·경기 출향향우를 대상으로 실시한데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으며, 보성의 역사와 문화 아름다운 경관을 둘러보며 우리 고장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애정심을 고취하는 시간이 됐다.

태백산박물관, 현부자작 벌교

금융조합, 방진관, 복지 등을 둘러보는 역사·문화 탐방과 제암산자연휴양림 ‘더듬길’ 산책, 차 만들기, 판소리성지 소리체험 등으로 고향의 향수를 만끽했다.

특히, 재부신향우회는 고향의 어려운 후배들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 5백만 원을 기탁했다.

기탁된 성금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달돼 관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김만식 회장은 ‘학생들이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보성을 구석구석 돌아보며 우리 고장을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문화탐방을 통해 출향향우 가족들이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과 지역에 대한 애정심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향우들의 끈끈한 인연을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영광군 “방문자 쉼터이용하세요”

생활원에 프로그램 운영…수험생 등 100여명 몰려



장성군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인기를 모고 있다.

장성군 농업기술센터는 15일부터 5차례에 걸쳐 장애인과 수험생, 초등학생 등을 상대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업기술센터가 생활 속 원

구성하고, 교육생의 편의를 위해 3차례는 장애인종합복지관, 문양고등학교, 공공도서관을 찾아가 교육을 진행한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6일부터 12일까지 사전에 신청을 받은 결과, 당초 접수원이 100여명 수준이었으나 계획대비 30% 가량이 증가한 129명이 신청해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과 함께 참여한 한 초등학생은 “엄마 아빠와 함께 크리스마스트리 만들기 처음으로 만들어봤다”며 “내년에도 멋지게 만들어 볼 생각이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고려해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알아보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겨울방학을 맞는 수험생과 초등학생 등에게 참여 기회를 준 것이 많은 관심을 이끌어 낸 것 같다”며 신청인 전원에게 교육 참여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성=빈정모 기자

제2회 고흥 설화 이야기 자랑대회 본선전

오늘 분청문화박물관 강당서 8팀 경연

발표 형식도 특별한 제한 없이 진행된다.

지난 16일 실시한 예선전을 통해 고흥지역 방언 구사력과 작품 완성도, 발표력, 역사와 문화·향토성, 관객 호응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8팀이 선정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우리의 삶과 문화가 오롯이 담긴 설화를 보존하고 항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흥군의 설화를 대상으로 고흥지역 방언을 할 줄 아는 고흥군민 8팀이 참석하여 열띤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경연자는 신화·전설·민담, 경험담 등 예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고흥지역의 이야기를 10분 이내로 자유롭게 구술하면 되는 등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부장



광주형일자리는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우리시의 정책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혁신운동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광주형일자리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상생과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광주를 만듭니다.



빛그린산단에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연계한 「광주형일자리 선도 모델」 구축